

ODA 리포트

2021
Vol.3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지 26

발행인: 김종덕 담당: 한덕훈, 김정현, 전혜은, 이지인 감수: 조정희

전화번호: 051-797-4666 E-mail: jh-kim@kmi.re.kr/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2021년 10월 31일



Contents

1

SDGs 관련
국제 동향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4

주요 행사

1 SDGs 관련 국제 동향

UNEP

플라스틱에 뒤덮인 바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생애주기적 접근 필요

- (배경) 매년 1,100만 톤의 해양 플라스틱이 발생하며 플라스틱이 생애 전주기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총 1.5 기가 톤¹⁾²⁾으로 지속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에는 세계 탄소 부문 예산의 17%를 플라스틱 기인 탄소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보전과 인류 생존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증대와 생산 저감이 필요하다³⁾.
- (국제동향)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은 G20가 2050년까지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80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국별 대응으로 국한된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⁴⁾
- (정책 시사점)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가능하다면 해양을 깨끗이 할 뿐 아니라 지구에 당면한 위기를 해소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① 매년 1,300만 톤 이상 버려지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도록 한다. ② 현재 9%만 재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여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활성화한다. ③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④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국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생산, 공공조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jh-kim@kmi.re.kr

1) 2015년 기준

2) JiaJia Zheng & Sangwon Suh, "Strategies to reduce the global carbon footprint of plastics, Nature Climate Change 9, 374-378 (2019):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8-019-0459-z> (2021.9.8. 접속)

3) UNEP 웹사이트: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peech/all-wrapped-plastic-rethinking-marine-litter> (2021.9.8. 접속)

4) UNEP, International Resource Panel 웹사이트, Policy Options to Eliminate Additional Marine Plastic Litter: <https://www.resourcepanel.org/reports/policy-options-eliminate-additional-marine-plastic-litter> (2021.9.7. 접속)

UNFCCC

제26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UNFCCC COP 26)

- (국제동향) 국제사회는 인류와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N이 주도하는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은 매년 당사국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의 주관하에 이탈리아와 협력하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제26차 당사국 회의를 할 예정이다. 190여 명의 국가 지도자와 수만 명의 협상가, 정부 대표, 기업과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⁵⁾
- *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란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을 대표하는 회의체로서 1992년 리우환경회의(Rio Earth Summit)를 통해 합의된 UN 기후변화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1995년 베를린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5년 12월 COP21에서 파리협정 체결 이후, 최근 COP에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실행을 위한 세부 이행 규칙(rulebook)들의 협의와 유엔 기본 협약 목적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상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 (정책 시사점) COP26에서 우리나라는 COP 25에서 제출하지 못한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안으로 보고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며⁶⁾ 이를 위해 해수부에서는 수송과 농축수산 부분 감축 목표에 맞추어 선박과 항만 구역 내 하역장비, 운송트럭, 어업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탄소중립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⁷⁾ 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한덕훈 센터장/ 김정현 전문연구원
bansock@kmi.re.kr / jh-kim@kmi.re.kr

5)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conferences/glasgow-climate-change-conference> (2021.10.15. 접속)

6) 이는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명시한데서 한층 강화됨(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7)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음(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제처 심의전), 법제처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 (2021.10.15. 접속))

UN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5) 개최 예정

- (국제동향)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Kunming에서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개최되었다. 고위급 수준의 총회에서는 Post-2020 프레임 워크의 결실을 맺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⁸⁾
 - *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 행동 계획 수립을 결정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정부 대표가 서명하여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여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 (정책 시사점)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7개 주제별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연안 및 해양생물 다양성 프로그램’이 존재한다.⁹⁾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①해양 및 연안 생태계 보호 ② 양식 및 기타 해양 활용을 통해 식량 안보와 생계 강화이다.
- 이를 위해 향후 우리나라도 환경부와 협의하여 해양부분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수산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와 함께 국제적 협력 사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jh-kim@kmi.re.kr

8) UN 홈페이지: SDGs 14번 관련 뉴스: http://www.news.cn/english/2021-10/04/c_1310226018.htm

9)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 <https://www.cbd.int/programmes/>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

2021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총예산은 3조 7,101억 원에 달하며, 2010년 이후 OECD DAC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임에 비해 2020년 한국은 9.7%로 DAC 회원국 전체 2위로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GNI 대비 ODA 비율이 2020년 0.14%에 그치게 되어,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기간인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본래 목표한 0.2% 달성에 실패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2010년에 약 1조 3,000억 원이었던 ODA 규모가 2021년 현재 약 3배 이상 증액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ODA 예산 중 해양수산부에게 책정된 예산은 2021년 기준 약 119억 원으로, 외교부(국제협력단 포함)와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포함)를 제외하고도 농림축산식품부(1,006억), 교육부(765억), 보건복지부(677억) 등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규모의 예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1-2025)이 발표되었고,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의 ODA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기획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 하에 12개의 중점과제와 지속성, 책무성, 효율성 등의 3대 이행 기반을 토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기본계획 비전에 명시적으로 공여국의 ‘국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한국으로서는 처음이며, 전 세계 국제 개발 관련 기본 문서에 국익을 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의미하는 국익의 해석을 두고 후속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DAC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이 정부 문서 국익(national interest)을 최초로 명기하였는데, 사실 영국이 여기서 의미하는 국익은 좁은 의미의 영국만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영국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여를 영국의 국익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광의의 포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사하게 글로벌 가치와 상생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로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강화되고 국제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것을 한국의 국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의 국익 논쟁에서 공여국의 이익을 위한 ODA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시민사회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상생의 국익에 기반하는 한국의 ODA는 단일한 섹터에 단년도 사업으로, 앞으로 ODA 사업을 진행하는 한계를 넘어서 이른바 ‘융복합적’, ‘프로그램적’ ODA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 연계된 섹터를 연결시키고 단기적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사회적 임팩트까지 고려하는 프로그램 방식의 ODA가 기획되고 이행될 때 비로소 한국이 주창하는 글로벌 가치와 상생의 국익이 실현되고 섹터 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특히, UN에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이러한 융복합적/프로그램적 ODA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개도국 특정 지역에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이와 연결되는 관련 섹터, 즉 젠더, 보건 의료 등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기획을 하면 학교를 지어주는 일만 하고 나오는 것보다 개발효과성이 배가된다는 접근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양수산 ODA가 앞으로 작은 규모로 어떻게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강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 관련 ODA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경우,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ODA 사업을 기획하여 파트너 부처의 예산을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액의 예산을 복수의 부처와 기관이 풀링(pooling) 방식으로 모아서 공동의 ODA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부처의 ODA 예산이 소규모일 경우 통합적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로울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융합적, 그리고 통합적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단기로 진행 가능한 ‘가나 어항 개보수 및 여성 어업인 역량 강화 사업’ 또는 중장기로 진행되는 ‘ICT 활용 불법어업 어선 추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자는 농림 섹터와, 후자는 ICT 섹터와 통합 방식으로 기획하여 이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해양수산 ODA 부문의 통합적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 시 공동 평가 수행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 전략이 필요하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법의 구체적인 이행방식이 정립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통합적 접근을 사용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성과관리까지 같이 연계하는 복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무부원장/ 교수

2021~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2021~현재 한국 UN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 상임이사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메콩강 내륙수로 선박사고 예방 및 경제, 운송효율 향상을 위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항로표지 운영을 통한 테스트 베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목적)
 - 캄보디아 메콩강, 톤레삽강과 내륙수로를 이해하고 물류, 경제, 항만, 선박 운항을 위한 수로 교통시설 확보와 항로표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기여
 -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의 관리·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내륙수로의 원활한 교통량 확보 및 물류 활성화 촉진과 경제발전에 기여

● 사업 주요경과

- (2018년) 캄보디아 공공운송사업부 담당 국장 방한(2018년 세계등대총회)
- (2019년) 캄보디아 항로표지 무상협력 사업 추진 의사 확인 및 사업제안서 요청
- (2020년) 캄보디아 무상원조 사업제안서 및 수원총괄기관(캄보디아 개발위원회) 공문 접수(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 (2021년)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 1차년도 사업시행 및 캄보디아 현장조사 실시
- (2022년)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 2차년도 사업시행 및 캄보디아 수로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와 세미나 교육 추진 예정

● 기대효과

- 해상 교통 신호등 항로표지 설치를 통해 선박의 안전항해와 해양교통시설의 필요성 이해, 경제, 항만, 선박 등 유관 분야의 동반성장 추진
- 한-캄보디아 간 국제 교류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
- 캄보디아 경제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사회적 가치 증대

● 관련 사진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지역 및 실무회의]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현황]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제협력센터 강현석 대리
hskang@katon.or.kr

신남방국

신남방국 실습생 대상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실습 선박 및 교원)를 활용하여, 자체 실습 선박이 없거나 부족한 신남방 국가의 해기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선실습 교육훈련을 실시
- (사업목적) 양질의 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 기회 제공

● 추진현황 및 계획

- (2021.10.18.) 국가별 실습 대상자 초청 작업, 외국인 교육생 교육용 교재 및 교구 준비, 실습선 매뉴얼 전반 영문화 작업, 실습선 운항 일정 협의 진행
- (2021.11.17.) 교육생 입국 및 승선실습 실시 예정

● 기대효과

- 승선 실습을 시작으로 국제 해사 교육·훈련 미래 시장을 선점하여, 급변하는 국제 해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新 국제 해기교육 시장 개척과 훈련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 가능케 함.
- 본 과정을 이수한 우수 외국 해기사 인력의 국내 송입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기업의 질 높은 외국인 선원 비율 제고

● 관련 사진



Onboard Training as an ODA Project

1. On purpose of empowering seafarer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onboard training utilizing training ship of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KIMFT).
2. The onboard training program will be implemented as par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pecifically on the basis of the New Southern Policy (NSP).
* ODA is governmental aid that promotes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3.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invite the cadets with full potential of becoming competent seafarers.
4. The onboard training program consists of the Basic Safety Training required by the STCW Convention as well as an actual onboard training at sea.

The detailed information about onboard training is as follows:

Date & Duration: Wednesday 27th October - Saturday 27th November 2021 (4 weeks)

- Entry & PCR test for COVID-19: 27th October (1 day)
- Self-isolation for COVID-19: 27th October - 9th November (14 days)
**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pandemic situation
- Entrance into KIMFT: 9th November (1 day)
- Basic Safety Training: 10th November - 12th November (3 days)
- Onboard Training: 13th November - 26th November (12 days)
- Departure: 27th November (1 day)

Participants: 12 cadets (No less than 2-3 female cadets)

- Second or third year students in maritime college
- From Indonesia, Vietnam and the Republic of Philippines

5. The onboard training program will be conducted in strict compliance with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Prior to the actual onboard training program, the trainees will go through a PCR test and self-isolation immediately after entering Korea.
6. We hope this onboard training program will be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cadets in strengthening their competencies and further a good starting point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futur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ACT US>
 367 Haeyang-ro, Yeongdo-gu, Busan, Republic of Korea (49111)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TEL: +82 51 620 5505 E-mail: ysongyi@seaman.or.kr / ysongyi2@gmail.com

[승선실습 프로그램 초청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제협력팀 이송이 교관
 ysongyi@seaman.or.kr

4 주요 행사

WMU-MOF-KMI CAPFISH 1차 워크숍

- 10월 19일(화)~22일(금) 4일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방식으로 동시 개최
 - IUU 어업 근절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CAPFISH) 프로그램 1차 워크숍을 WMU와 KMI가 공동으로 개최
 - 본 CAPFISH 프로젝트는 워크숍 2회 개최와 교육 교재 발간 포함
 - 2차 워크숍은 2022년 02월 15일(화)~18일(금) 개최 예정
- 주최,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여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해사기구(IMO), 유럽연합 해양수산총국(EU DG MARE),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University of St. Andrews), 시에라리온 대학교(University of Sierra Leone),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등
 - (참석자) 업계 전문가, WMU 석사 재학생 등(약 50여 명)
- 주요 내용
 - IUU 어업의 글로벌 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기구(FAO, ILO, IMO 등)의 역할
 - IUU 어업 근절에 대한 다각적 접근법 소개
 - 실무자 및 정부 관점에서 바라보는 IUU 어업
 - 해상 안전 및 IUU 어업 근절 관련 사례 연구



세계해양포럼 해양정책 세션

- 2021년 10월 27일(수)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
 -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WOF)」의 세부 세션으로 진행
 - 해양수산 정책 진담 조직 및 통합 행정의 유용성과 성과 공유
 - 향후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유튜브 송출) · 오프라인 공동 개최
- 주요내용
 - 주요 해양 국가 해양수산 통합 행정 정책의 비전 공유
 - 우리나라 해수부 성과와 향후 해양수산 통합행정 방향 및 우수사례 공유
 - 인도네시아, 프랑스, 유럽연합, 미국의 해양정책 동향과 비전
 - 우리나라 해수부 ODA와 국제협력 사업의 권역별 의의를 소개 및 공유
- 주최 및 주관
 - 해양수산부, 부산일보,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참여기관
 - 미국 해양대기청(NOAA), 프랑스 브르타뉴 대서양 해양 클러스터(Pôle Mer Bretagne Atlantique), 유럽연합 해양수상총국(EU DG-MARE),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Maritime and Investment Affairs), 가나 수산위원회(Fisheries Commission,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Development (MoFAD)), 스페인 라스팔마스 데그란카나리아 대학교, 페루 까야오 국립대학교, 멕시코 시날로아자치대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주한대사관 등

융합 ODA 발굴을 위한 협의회(KEI-KMI)

- 일시: 10.13. 오후 2시~3시, 온라인
- 참석 대상: KEI 글로벌 환경협력센터,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 발표: KEI 글로벌 환경협력센터 이현우 센터장
- 논의 내용: 환경정책 교육원의 개도국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참조한 해양수산 부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논의/ 해양부문 환경 융합 ODA 프로젝트 발굴 방안

ODA 시행기관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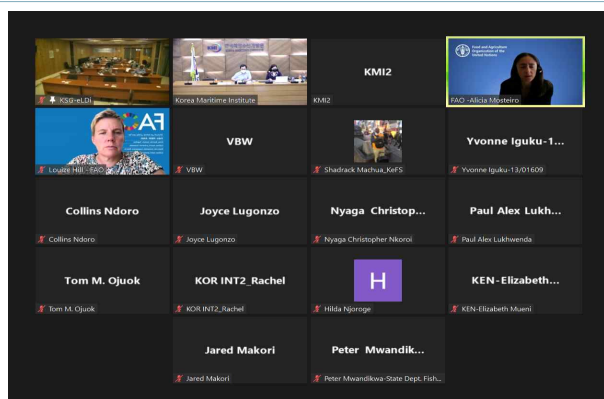
- 일시: 10.29. 오후 3시 30분~4시 30분, 온라인
- 참석 대상: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 발표: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권율 센터장
- 논의 내용: 올해 시행 중인 국조실 시범사업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ODA 시행기관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KOICA 글로벌연수: IUU 어업관리 역량강화(202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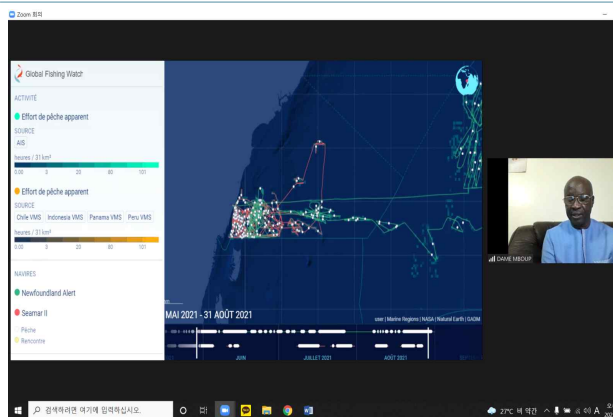
- 사업목적: IUU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 체계와 방법 공유를 통해 수원국의 IUU 어업 감시 체계 구축 환경 마련에 기여
- 사업 진행: 발표 16개(15개 강의와 1개의 액션플랜 워크숍)
 - 참여 국가: 호주, 미국, 한국 3개국
 - 참여 국제기구: FAO, ILO, IMO, Global Fishing Watch
- 기대효과: 케냐 해양수산 공무원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지원
- 연수 시기: 2021년 9월 6일~10일/온라인 연수
- 시행기관: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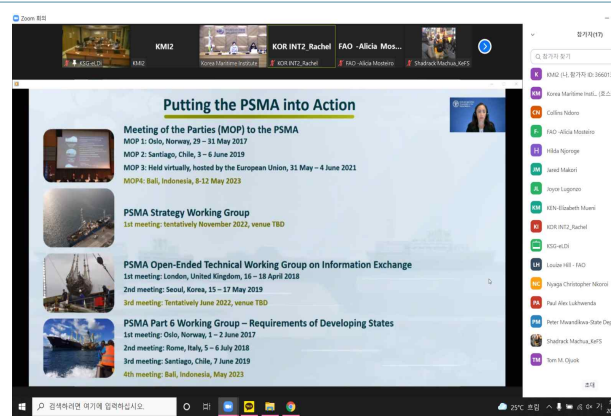
케냐 현지교육 전경



FAO, KMI, 케냐 현지 온라인 교육 현황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20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KMI-동경해양대 국제 세미나

- 2021년 11월 08일(월) 오후 3시~5시, KMI 컨퍼런스룸
 - 해양·수산·해운 분야에서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한일 간 발전전략 및 협력 계획 발굴을 목적으로 KMI, 동경해양대(TUSAT)가 공동 개최
 - 코로나 상황을 고려, 온·오프라인 공동 개최
- 기대효과
 - 해양폐기물 해결(SDG 14) 및 AI-항만 발전 등에 대해 집중 논의 후 공동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한일 간 해양 수산 분야 협력 사업 확대 도모 및 학문적 발전 강화 도모
-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
 - 동경해양대 해양 AI 개발 및 평가센터(MAIDEC) 소개
 - 디지털 시대의 한국형 스마트 자동화 항만
 - 일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연구
 -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한중 해운분야 탄소저감정책 세미나

- 2021년 11월 23일(화) 오후 3시~5시, Webinar로 진행
 -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 중립 및 중국의 2060년 탄소 중립을 위한 해운 분야 대응 방안 점검과 한-중간 협력 모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련해사대 공동 개최
- 기대효과
 - 한-중 해협에서 환경친화적인 해운물류 지속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한국과 중국의 탄소 저감 해양 정책 점검
- 참여기관
 - 중국해양대학교, 산둥사회과학원, 현대해양서비스, 대우조선해양
- 주요 논의내용
 - 중국의 해운·항만 부문 탄소 저감 정책
 - 한국의 해운·항만 부문 탄소 정책 방향
 -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정책